때가 되어야 들을 수 있는 법문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⑤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법을 연설하시지만,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아시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들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一大事因緣)' 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어째서 부처님 세존들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써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하면, 부처님 세존들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어(開) 청정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려고(示)하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悟) 하려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이 부처님 지견의 도에 들어오게(入) 하려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 여래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하는 것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으로써 중생들에게 보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라.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一佛乘) 때문에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할 뿐이요, 다른 이승(二乘)이나 삼승(三乘)은 없느니라. 사리불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그러하니라."

〈방편품〉에 설해져 있는 이 대목은 부처님이 왜 중생 세계에 오셨는가 하는 그 근본 이유를 밝힌 말이다. 일대사인연이란 가장 중대한 일을 해야 할 인연이라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생들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開), 보여주고(示), 깨닫게 하고(悟), 들어오게(入)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법화경〉의 핵심 개념이라 한다. 불지견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알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천태 지의(天台 智顗, 538~597)는 〈법화문구〉에서 부처님이 일체종지(一切種智)로 아시고 불안(佛眼)으로 보는 것을 불지견(佛知見)이라 한다 하였다. 중생의 망상분별이 없어져 식(識)이 지혜(智)로 바뀌진 전식위지(轉識成智)의 경지에서 알고 보는 것이다.

전오식(前五識)이 바뀌어 성소작지(成所作智)가 되어 오관(五官)을 통해 자리이타 하는 업을 짓는 지혜가 이루어지고, 육식(六識)을 묘관찰지(妙觀察智)로 바꾸어 제법의 행상을 신묘하게 관찰하고 정(正)과 사(邪)를 구별하여 남을 교화하여 의혹을 끊게 해주며, 칠식(七識)을 바꾸어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이루어 일체 현상의 차별을 뛰어넘어 피차가 평등한 것이라고 관찰하며, 제8아뢰야식(阿賴耶識)을 바꾸어 대원경지(大圓鏡智)를 이루어 삼라만상이 모두 분별이 없는 지혜의 모습이라 원만 구족한 일법계(一法界)임을 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성취해 나가 구경의 일승(一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법화법문이다. 〈법화경〉의 대의가 삼승법(三乘法)을 회통하여 일승에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이승(二乘)들을 부정하여 평가절하하는 말이 경문에 직접 나온다. 성문이나 연각은 〈법화경〉의 법문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승들도 〈법화경〉을 지녀야 부처님의 참 법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사리불의 청에 의하여 부처님이 마지못해 법화법문을 설하기 시작할 때 사부대중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간다. 부처님은 말리지 아니하고 사리불에게 저런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화법문은 때가 되어야 설하는 법문이라 하였다.

"사리불아, 이 미묘한 법은 여래가 때가 되어야 설해주는 법문이니 우담발화(優曇鉢華)가 때가 되어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법화경〉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을 설한 경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융통성 발휘한 실천, 分受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⑤ 오계의 실천: 수계(受戒)와 분수(分受)

삼귀의(三歸依)를 한 불자라면 수계(受戒)라는 의식을 통해 법명(法名)을 받는다. 이 의식에서는 오계(五戒), 즉 다섯 가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맹세한다. 어떤 이는 계(戒)를 받아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계를 받아서 지니겠다는 마음속의 굳은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계는 계를 지키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 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부파(部派)에서는 계를 받고 지키겠다고 서원할 때 계체(戒體)가 획득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계를 지킬 것을 스스로 결심하고 맹세할 적에 그릇됨을 막아주고 악을 멈추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해 살생하려고 할 때, 마음속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계에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평생 지킬 각오로 계를 받기 때문에 '목숨이 다할 때까지' 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삼귀의를 함으로써 우바새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계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열렬한 우바새는 삼귀의를 한 후에 다시 오계를 받고 '구족(具足)의 우바새' 가 되어 수행했다. 오계 가운데 불사음계(不邪婬戒)는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지만, 우바새 가운데서도 성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범행(梵行)을 지키는 이가 나왔다. 우바새가 불법(佛法)을 깊게 이해하여 마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 예류과(預流果)에 도달하여 성욕이 없어진다. 이런 범행을 지키는 우바새를 '단음(斷婬) 우바새' 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욱가장자(郁伽長者)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초기불교 시대에는 삼귀의를 한 우바새,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받아 지키는 구계의 우바새, 범행을 지키는 단음우바새가 있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전과 달리 오계의 실천에 다소 유연한 입장인데, 오계의 분수(分受)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오계 전부를 받지 않고, 일부만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서는 다섯 종류의 우바새, 즉 오계 가운데 1계만을 받는 일분행(一分行) 우바새, 2계를 받는 소분행(小分行) 우바새, 3계 · 4계를 받는 다분행(多分行) 우바새, 전부를 받는 만분행(滿分行) 우바새, 오계를 받고 난 후에 범행을 서약한 단음(斷婬) 우바새가 있다고 설한다. 이는 오계 전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이는 일부만이라도 받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오계 전부를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만이라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는 "재가신자에게 오계법(五戒法)이 있는데, 이를 마음속에 깊이 굳게 받아 지녀야 하며,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오계를 파(破)해서는 안 된다"고 설한다. 오계의 일부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계 전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오계의 일부를 지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오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계의 실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은 재가자의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재가자가 지켜야 할 수준 이상을 지키지만, 일부는 하나의 계조차도 지키기 어려워한다. 만약 오계 전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이상론을 고집한다면 오계를 받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반면에 오계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추어 지켜도 된다고 한다면 계 자체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가자는 원칙적으로 오계 전부를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⑤ 고행의 두 유형

고행과 사회의 관계

"장발의 고행자는 바람의 옷을 입었어, 흙먼지의 옷을 입었지. 그들은 신들이 걸어갔던 그 바람의 길을 따라간다네."

거의 3천여 년 전, 고대 인도의 시인들이 지은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여기 나오는 장발의 고행자는 아마도 나체의 고행자로서 기름때와 먼지로 범벅이 된 긴 머리카락을 끌면서 땅을 기어가고 있었을지 모른다. 궁금해지는 건 이들이 어떻게 생존해왔고,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고행자 또는 출가사문은 불교가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 삶의 형태가 불교를 간접적으로 말해줄 것이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 고행자의 유형은 세속 사회와 관계를 고려해볼 때 크게 두 그룹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그룹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견지하는 고행자들이다. 이들은 거의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인위적으로 음식을 지어먹거나 사람들이 만든 옷감을 걸치지 않는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깊은 산속이나 계곡에 살면서 나무껍질과 잎으로 옷을 해 입고 풀뿌리나 나무 열매로 생존한다. 숲속에서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지언정 마을에서 재배된 채소들도 기피한다. 인간이 일구어놓은 밭을 가로지르거나 마을 근처에도 서성거리지 않는다. 쟁기로 갈아엎은 밭이야말로 인간 문명의 상징이므로 이 고행자들은 '밭 근처에 가지 않는 존재' 로 대변된다. 한마디로 인간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형태의 고행주의다.

또 다른 고행자 그룹은 세속 사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거의 아무런 소유물도 갖지 않은 채 매우 소박한 생활을 꾸려나간다. 음식이 필요할 때는 마을에 들어가 탁발하며, 몸에 걸칠 것이 필요한 경우는 사람들이 버린 옷이나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내 세탁한 다음 입는다. 길게 머리카락이 자라면 상투머리를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마을 인근에 머물지만, 비가 계속되는 우기(雨期)에만 한 지역에 머물 뿐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머무르지 않는다. 적당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나 나무 밑에서 잠자리를 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주는 대체로 도시나 마을사람들과의 일정한 의존관계를 통해 유지되었다. 세속적 인간사회에 기생(寄生)해 있었던 그런 고행주의의 형태를 갖는다.

전자에 해당하는 고립형 고행자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완전히 인도 땅에서 사라졌으나 조각이나 문학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이런 고행자의 모습은 가끔씩 불경 속에도 묘사되는 일각(一角)선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각선인은 석가모니의 전생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고행자는 숲속에서 홀로 고행하던 아버지와 사슴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 결과, 일각선인은 태어나면서 뿔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로지 숲속에서만 고행에 전념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재배한 음식과 과일의 맛을 모를 뿐 아니라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 후, 그 나라에 혹독한 가뭄이 찾아오자 일각선인의 신통력을 빌어 비를 내리기 위해, 왕을 여성들과 음식으로 유혹해 이 '야생의 존재' 를 도시로 데려온다.

이런 고행자의 전통과는 반대로 후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사회기생형 고행자 전통은 우리가 잘 아는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사문 그룹으로 발전한다. 불교 이전에도 이들은 마을 가까운 숲이나 화장터, 계곡이 있는 산허리쯤에 거주하며 살다가, 때로 무리가 형성되면 보시를 받아 일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사원이나 거주처를 얻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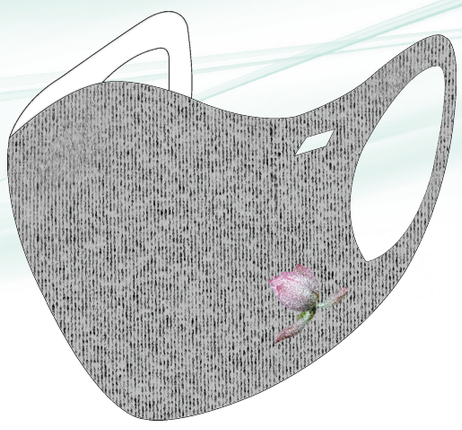
그러나 이 두 유형의 고대 고행자 유형은 세속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특이하게도 두 고행자 유형은 성(性)과 결혼에 관한 입장 또한 상반된다. 고립형 고행자가 성과 결혼을 더 금기시할 듯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고립형 고행자들은 숲속에서 처자식을 거느리는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지만, 기생적 고행자들은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기피하였다. 우리가 고대 인도의 고행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